이번 겨울방학에는 600년 서울 디자인을 탐험하자

'서울디자인자산展'

서울시는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 서울의 해를 맞이하여 서울디자인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우리 디자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서울의 대표적인 디자인 자산을 선보이는 '서울디자인자산展'을 1월 8일부터 3월 7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서울이 간직하고 있는 우수한 문화 · 역사 · 도시환경으로부터 현재와 미래의 가치로 계승할 만한 것들을 디자인 관점에서 재발견, 재해석하여 '서울디자인자산' 51선을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도시 간 국제경쟁을 거쳐 최초의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된 서울의 600년 디자인 역사와 뿌리, 그리고 디자인의 미래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조형물 위주의 전통적 전시방식을 탈피, 서울의 600년 디자인 역사와 뿌리를 서울의 IT기술을 비롯한 최첨단 전시기법으로 구현하여 서울디자인자산의 과거, 현재, 미래 가치를 보다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서울의 유·무형 디자인자산을 3D 입체 영상, 멀티미디어 쇼, 영상 게임, 디지털 병풍, 230도 영상 파노라마 등으로 재구성하여 관람객은 마치 600년 서울의 디자인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을 맛볼 수 있다.

또한 서울의 살아 숨 쉬는 디자인가치와 유구한 디자인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번 전시는 교육적인 콘텐츠도 풍부하여 겨울방학을 맞은 초·중·고교 학생들은 물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관람하기 좋아 교육과 재미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종합 에듀테인먼트 체험관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는 관객이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7개의 전시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디자인자산을 특징별로 묶은 5개의 존과 프롤로그, 에필로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롤로그 존인 '해치:안녕서울'에서는 영상투사를 받은 해치가 화려하게 변신하며 관람객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첫 번째 존인 '디자인자산:서울의 어울림'은 관객 체험형 인터렉션 미디어아트로서의 '훈민정음', 미디어 아트 게임으로 재구성한 '정조대왕 원행 반차도' 등 디자인자산을 즐기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었다.

두 번째 존인 '삶의 이미지:서울생활'은 활옷, 궁중음식, 북촌한옥마을, 한양민화 등 전통적인 삶의 양식이 반영된 자산들을 실물전시를 포함한 영상투사 미디어아트, 멀티미디어쇼, 디지털 병풍 등의 현대적 감각의 전시기법으로 표현하여 전통자산의 색다른 디자인가치를 느낄 수 있다.

세 번째 존인 '공간의 변화:서울성'은 한양진경에서 홍대거리에 이르는 서울 공간의 다양한 변천사를 멀티 스크린 미디어아트, 디지털 함, 미디어아트 체험관, 무안경 3D 입체영상, 그래픽아트 등의 첨단 전시기술이 사용되어 관객들이 서울디자인의 600년 역사를 흥미진진하게 탐험할 수 있다.

네 번째 존인 '미래를 위한 자산:서울유산'은 경복궁, 선유도 공원, 월드컵경기장, 인사동 등 근현대 건축물과 거리 그리고 그 속에서 자산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제영상, 미디어아트 체험관, 거리체험관 등으로 표현하여 친환경(eco), 무장애(universal), 인본주의(humanism) 디자인의 청사진을 보여준다.

다섯 번째 존인 'WDC2010:디자인서울'은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가 된 서울을 알리고, 서울디자인자산을 미디어월, 사이버박물관 등을 통해 체험하는 공간이다. 관람객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인터렉티브 스크린을 통해 재미있게 조작할 수 있으며 일반 벽면에 앨범을 만들 수도 있는 재미가 있다. 찍은 영상은 모바일이나 블로그에 곧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에필로그 존인 '600년의 흐름'은 관람객의 발밑으로 600년 서울 디자인 자산의 이미지들이 한강과 서울의 하늘과 어우러져 함께 흘러가는 600년 흐름의 빛의 길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자신이 마치 서울디자인자산의 중심에 서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서울시는 세계디자인수도 서울의 해인 2010년 한 해 동안 이번 '서울디자인자산展' 이외에도 'WDC세계디자인도시서미트(2.23~2.24)', 어린이 디자인 창의력캠프(5월), '서울디자인?마당(9.27~10.7,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의 세계디자인수도 사업을 연중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에 ' 서울디자인자산展 '을 통해 선보이는 전시 콘텐츠들은 향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되어 서울을 대표할 세계적인 디자인 콘텐츠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강내영 기자 kny@eduyonhap.com

'함께 하는 우리말 여행'

'우리말 다듬기'

▷ '이렇게 바꿨어요! (다듬은 우리말)'

'리콜(recall) "➡'결함보상(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회사 측이 제품의 결함을 발견해 보상해 주는 소비자 보호 행위나 제도'를 통틀어 이르는 '리콜(recall)'의 다듬은 말로 '결함보상(제)'를 선정했다.

국립국어원은 '리콜(recall)'을 대신할 우리말을 확정하기 위한 누리꾼의 제안 모두 538건 가운데, 원래 의미를 잘 살리면서 우리말의 단어 구성에 맞는 듯한 '흠보상(제)', '결함보상(제)', '책임보상(제)', '보상회수(제)', '불량거둠(제)' 등 모두 다섯을 후보로 해 투표를 벌였다. 그 결과 모두 1,849명이 투표에 참여해 '흠보상(제)'는 150명(8%), '결함보상(제)'는 878명(47%), '책임보상(제)'는 456명(24%), '보상회수(제)'는 246명(13%), '불량거둠(제)'는 119명(6%)이 지지했다. 따라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결함보상(제)'가 '리콜(recall)'의 다듬은 말로 결정됐다.

▷ 어떻게 바꿀까요? ('다듬을 말 투표')

'아킬레스건(Achilles腱)'

투표기간 : 1월 5일 ~ 1월 18일

◆ 보기 : 최근 '루저' 발언 때문에 큰 소동이 있었다. 이 또한 키 작은 남성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이 불씨가 된 것이다.

◆ 의미 : 아킬레스건(Achilles腱)은 고대 그리스의 전설적인 영웅 아킬레우스가 발뒤꿈치를 빼고는 불사신이었으나 적장이 쏜 화살을 발뒤꿈치에 맞고 죽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발뒤꿈치의 뼈 위에 붙어 있는 힘줄이라는 뜻의 의학용어를 말하기도 하지만, 앞서 말한 이유 때문에, 현재에는 '어떠한 상대의 치명적인 약점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로 '아킬레스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 제안 결과 : 지난 2주일 동안 '어떠한 상대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리켜 이르는 '아킬레스건(Achilles腱)'을 대신해 쓸 우리말을 공모한 결과 '437'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국립국어원은 이 가운데 다음 다섯을 투표 후보로 선정했다.

◆ 투표 중인 후보어

① (절대)급소(어떠한 상대의 절대적으로 취약한 부분)

② 결정적 빈틈(어떠한 상대의 결정적으로 약한 부분)

③ 취약점(어떠한 상대의 가장 취약한 부분)

④ 최대약점(어떠한 상대의 가장 큰 약점)

⑤ 치명(적)약점)(어떠한 상대의 치명적인 약점)

투표는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net)과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http://www.malteo.net)에서 진행 중이다.

▷ 후보어를 제안해 주세요!

다듬을 말 : '아이젠(eisen)'

제안기간 : 1월 5일 ~ 1월 18일

◆ 보기 : 눈길에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이젠 같은 등산 장비도 필수이다.

◆ 의미 : 아이젠(eisen)은, 등산화 바닥에 부착하여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등산 용구를 말한다. 겨울 산행 시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빙판·눈 위를 걸을 때 사용하는데, 독일어로는 슈타이크아이젠(steigeisen), 영어로 크램펀(crampons)이라고도 한다.

예전엔 큰 산을 오르거나, 빙벽을 오를 경우에만 사용했지만, 지금은 보편화되고 가벼워져 간단한 산행 시에도 많은 사람이 편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등산화 바닥에 부착하여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등산 용구'를 말하는 '아이젠(eisen)'을 대신할 우리말은 무엇이 좋을까? 더 예쁘고 알기 쉬운 우리말을 제안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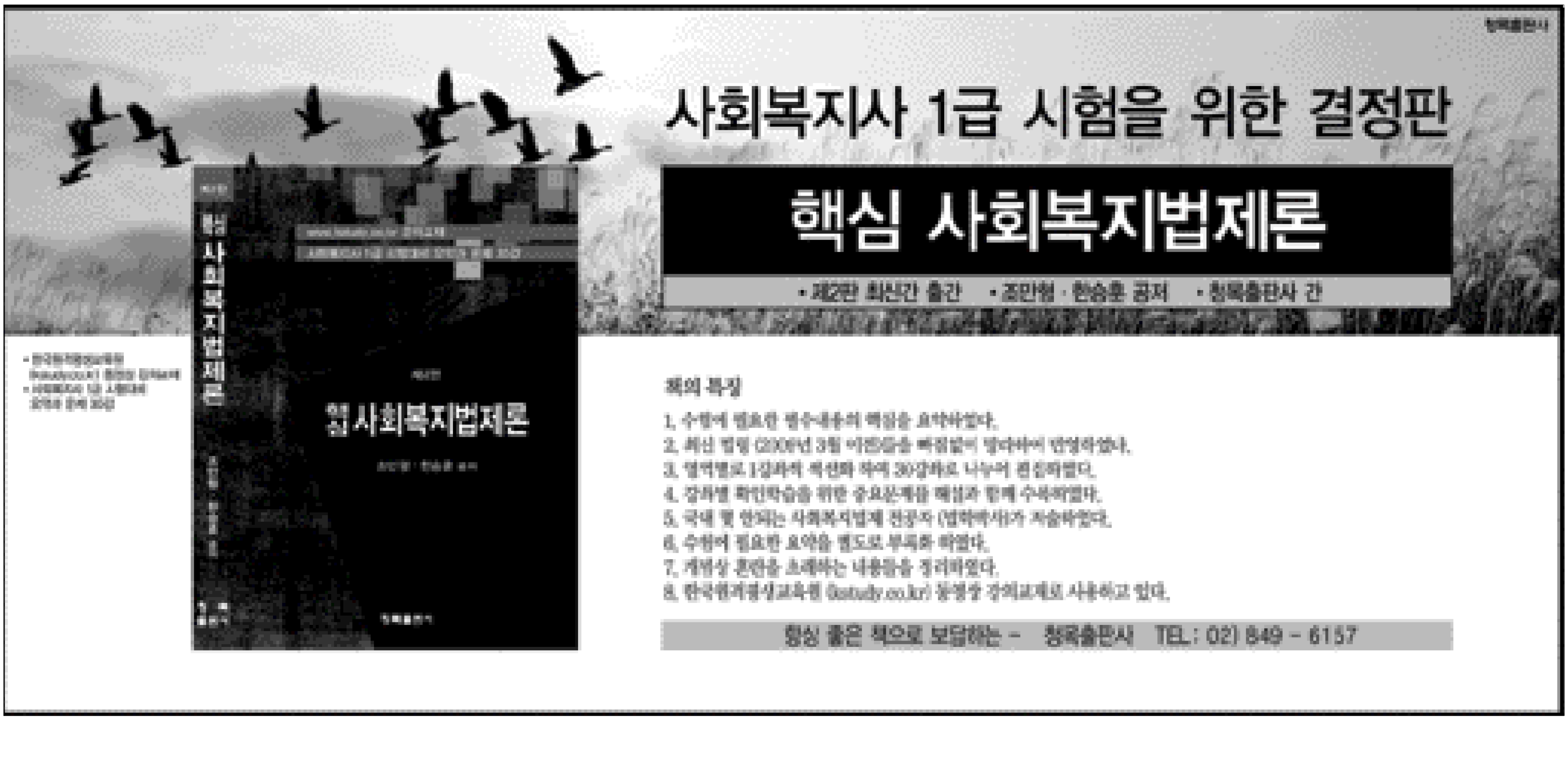
◆ 제안 : 후보어 제안은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net)과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http://www.malteo.net)에서 진행 중이며 기간은 1월 18일까지이다.

알쏭달쏭 우리말

▷ **'맨드리'**

「명」 ① 옷을 입고 매만진 맵시. ¶그는 인물보다 맨드리가 쓰레기꾼 축에 섞이기는 아까웠다. 〈현덕, 남생이〉 ② 물건이 만들어진 모양새. ¶이 물건은 맨드리를 보니 공이 많이 들었구나. ③ 이미 만들어 놓은 물건. ¶요즈음은 맨드리가 잘 팔린대요.

▷ **'에다'**

「동」 ① 칼 따위로 도려내듯 베다. ¶계곡의 밤바람이 코끝을 에어낼 것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김용성, 리빠똥 장군〉 ②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하다. ¶현모에게 있어서 돌아간 남편에게 내리는 고 노인의 가혹한 평가는 가슴을 에는 아픔을 주었다. 〈선우휘, 불꽃〉

자료제공 국립국어원, 정리 양원석 기자